

▶ 학술상 수상강연

웰빙시대 기능성 식품의 현황과 전망

김 현 구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 학회가 1992년 창립하였으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4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로 2006년 현재 우리 학술지는 연간 6회 발간하며 산업지를 발간하는 큰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15년의 역사를 창조해 오면서 그동안 많은 우수한 논문 발표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식품저장유통 분야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대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이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수상자 선정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저를 2006년도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982년 첫 논문을 발표한 이후 2006년 10월까지 SCI 논문 13편을 비롯하여 11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국제 학술회의 36편, 특별 강연 30회 등 153편의 논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연구 초기에는 식품의 저장성과 이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연구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천연물과 식품의 생리활성 검색 등 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학술상 수상 강연은 웰빙시대 기능성 식품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평균수명과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암, 고혈압 및 당뇨병 등 질병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병의 발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발병의 주요 원인은 식생활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NBI 보고서에 따르면 50개 이상 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를 집계해 2003년 건강기능식품 세계시장을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200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3을 점유하며 유럽이 150억 달러, 일본이 100억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이

건강기능식품 세계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된 건강기능식품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그 기능성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 집단에 의해 상당한 과학적 합의(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과학적 합의에 근거한 기능성을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평가 결과에 기초한다. 과학적인 효능 평가에 근거하여 그 기능성이 입증된 식품소재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질환의 예방 및 질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